

# 개인내적 특성과 가족 특성 및 직업만족도가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붐 세대 대기업 근무자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Personal Trai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ged Men from the Baby Boomer Generation Working in Large Corporations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장미자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교수 · 연구원 김득성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 : Mija Ja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Research Fellow : Deuk Sung Kim

###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surveyed middle aged men, who were from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worked for large corporations in Seoul, Busan, Ulsan, Cheonan, Yeosu, Sugi, Suwon and Daejeon. A total of 166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ost participants worked in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were professionals with high educational levels and incomes. Second, the middle aged men were found to enjoy high psychological well-being when they had high ego-resilience, when they had high satisfaction with fatherhood, when they expressed themselves more(emotional expression), when they had higher job satisfaction, and when they had experienced less of a burden in supporting their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did not affect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주제어(Key Words)** : 중년남성(middle aged men), 심리적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정서표현(emotional expression)

**Corresponding Author** : Mija Ja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Kumjung-ku, Busan, 609-735, Korea Tel: +82-51-510-1717 Fax: +82-51-513-7976 E-mail: mija\_jang@hotmail.com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 일부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중년기 성인들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진실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김애순, 2004). 베이비붐 세대의 중년기 진입으로 중년층의 절대적 크기와 우리나라 인구분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한경혜, 이정화, 옥선화, Ryff, & Marks, 2002) 베이비붐 세대의 중년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기에 태어나 빈곤한 농업기반 사회를 지식정보화의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시킨 주력군으로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평생을 일벌레(workaholic)로 살아왔다. 이 세대는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인적자원으로 평가받으며 문화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고, 현재는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의 불안정감과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나일주, 임찬영, 박소화, 2008).

외환위기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중년남성들은 직업에서 상승과 진보보다는 내리막길을 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개인적 건강에 대해서도 중년기 변화에 따른 신체적 쇠퇴를 자각하게 되며, 신체적 변화에 따른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모든 중년남성들이 이 시기를 위기로 경험하거나 혹은 발달상의 전환기로 생각하며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년기의 개인은 누구나 어느 정도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므로(Jaques, 1965; 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 Mckee, 2007; 이은아, 2007 재인용), 중년남성들의 심리적 혼란을 긍정적인 안정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써 인구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직업 종류에 따라 삶의 모습이 매우 다르므로 이들 집단 내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불안정 고용 증가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비자발적 은퇴의 확산으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는 불안감의 증가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김진혁, 2004; 강모성, 전영주, 손태홍, 2008 재인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견인해 온 대기업에 근무하는 중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남성의 가족생활과 심리적복지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년남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심리적복지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년남성들 자신에

대한 개인내적 특성 변인인 자아탄력성과 정서표현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서적 감정표현을 절제하고, 강인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남성성만을 발달시키도록 교육되어 왔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적인 고민과 문제에 대해 솔직히 드러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의논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여 심리적 갈등이나 부담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고기숙, 2003).

정성호(2006)는 우리나라 중년남성은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고, 가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의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감과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하였고, 이것을 한국의 중년남성이 겪는 일종의 화병이라 표현하였다. 따라서 중년남성의 삶에 있어서 자아탄력성과 정서표현 같은 개인내적 특성 변인은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오늘날 급속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변화, 여성들의 교육 및 사회참여 등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 하락과 성역할에서의 가치관 변화를 가져왔다. Barnett, Marshall과 Pleck(1992)은 남편역할과 아버지역할의 질은 직장에서의 힘든 경험과 관련된 부정적 효과의 완충역할을 하므로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김태현, 김양호, 2003 재인용). 또한 중년기 남성들은 대인관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며, 여성들은 독립적인 자신의 의미를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는 시기(윤정기, 2008)이다.

아울러 중년세대는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대책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구 노령화 현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지속년수가 증가되므로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부모 부양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임정숙, 2007).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샌드위치 세대'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 자녀의 대학학비와 결혼자금·손자녀 양육 등 다양한 의존성 요구에 끼여서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경혜, 2010). 따라서 아버지역할만족도, 결혼만족도, 부모부양부담과 같은 가족 특성 변인이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남성들에게 일이란 사회 내에서 그의 일차적인 삶의 근거가 되고 그것을 통해 문화적·계층적·사회적 틀 속에 짜여 들어가게 되며(Levinson et al., 2007), 주요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직업역할에서의 성공적 수행이나 경험이 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조원지, 한경혜, 2001).

특히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의사결정과 책임을 지는 직위에 있는 중견간부직을 맡고 있는 중년남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과중한 근무시간 및 책임에 대한 부담감, 성과

에 따른 인사제도,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고민 및 가족부양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리적복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의 개인내적 특성 변인과 가족 특성 변인 및 직업만족도가 심리적복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년남성의 개인내적 특성 변인으로 자아탄력성과 정서표현을, 가족 특성 변인으로 아버지역할만족도, 결혼만족도 및 부모부양부담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변인과 직업만족도가 심리적복복지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중년남성의 심리적복복지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년남성의 개인내적 특성 변인과 가족 특성 변인,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복복지감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중년남성의 심리적복복지감에 대한 개인내적 특성 변인과 가족 특성 변인 및 직업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중년기

중년기는 생물학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변동이 오는 시기이며, 인생주기에 있어 그 자체의 중요성과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변화와 성장 그리고 강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박준희, 2004).

중년기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발달시킨 Jung은 40세를 전후로 하여 행동과 의식의 탈바꿈이 발생하는 결정적 전환기로 보았으며, 이 시기에는 인생의 전반부까지 무시되어 잠재되어 있던 보다 본능적이고 적나라한 자아가 출현하면서 개별화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였다(Levinson et al., 2007; 박준희, 2004 재인용). Jung은 이 시기의 남성은 자신과 상반되는 성적 측면 즉 남자들은 여성적인 측면(anima)을, 여자들은 남성적인 측면(animus)을 나타낸다고 하였다(박근희, 2004). 이로 인해 남성은 유친성이 증가하면서 대인관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아내와의 동료감,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등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반면, 여성은 독립적이 된다고 하였다(윤진, 1985). 즉 남성들은 남성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anima)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생의 초반부에는 이 여성성을 사회 문화적 기대

때문에 억누르고 지내게 되고, 중년기에 이르면 자신의 다른 내면인 여성성과 갈등 없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마는 영혼의 대변자로서 남성의 행동이나 사고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며, 외적으로는 강한 남성에게 내면에 있는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통해 균형 있는 인격을 지니도록 인도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4년 출생자로 46세에서 55세의 성인들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로서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도성장하기 시작한 80년대 사회로 진출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이전의 '전쟁세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양육과, 성장의 뒷받침이 된 고등교육이 가능하였고,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훌륭한 인적자원이 된 한편 권위주의 교육에서 탈출한 청년기에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면서 장발, 통기타로 상징되는 청년문화를 만들어냈다. 소득이 향상되면서 80년대 이후 아파트, 자동차, 해외여행 등에서 막강한 소비력을 과시하면서 고도성장을 뒷받침하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외환위기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세대로 구조조정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실업'에 처음으로 노출된 세대이며 자녀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이름 없는 40대' '사오정' '깁세대' 등 패배적이고 자조적인 명칭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류지수, 2007).

### 2. 심리적복복지감

심리적복복지감이 중년기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Ryff(1995)는 개인이 불안이나 우울증, 다른 형태의 심리적 병리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심리적복복지감의 개념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긍정적 정서와 경험에 바탕을 둔 심리적복복지감 개념을 제안하였다(안정신 외, 2004 재인용).

초기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경제적·환경적 또는 사회적인 삶의 상황과 같은 객관적 삶의 질이 어떠한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주로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Bauer(1966)와 Campbell(1976)과 같은 학자들은 교육수준, 건강, 고용, 범죄감소율, 분배정책, 인구증가율, 경기 등과 같은 사회지표를 객관적 삶의 질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Ryff와 Keyes(1995)는 심리적복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이 삶의 질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하유진, 2007). 또한 기존의 심리적복복지감이 현재의 정서적인

결과물(outcome)만을 반영할 뿐 긍정적 심리상태의 특성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김경민, 한경혜, 2004)는 한계와 달리 Ryff의 심리적복지감은 '자신의 삶과 자아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긍정적 심리 기능(posi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김경민, 한경혜, 2004).

### 3. 개인내적 특성 변인

#### 1) 자아탄력성

중년남성에게 있어서 중년기 변화를 변화로 보느냐 아니면 위기로 보느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자아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Block은 ego라는 접두사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고 명명했으며, 탄력성을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그동안 국내와 국외의 자아탄력성 연구는 빈곤, 가정불화, 정신병력을 가진 부모 등의 위험요소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황신덕, 2004),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장휘숙, 2001; 허정선, 현명호, 2005 재인용), Klohnen(1996)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낮은 개인은 직장, 인간관계, 가정생활과 관련해 일어나는 난처한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황신덕, 2004).

따라서 중년남성이 중년기의 변화와 위기의 상황에 대한 재구성능력과 상황을 유연하게 다루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이 심리적복지감과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2) 정서표현

정서는 본래 흥분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감정이 외계의 자극이나 내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쾌, 불쾌의 미분화된 흥분상태라면 정서는 분노, 공포, 환희와 같이 보다 더 세분화된 상태로서 정서적으로 자극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체적 변화와 동기화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다(임창재, 1997; 하정, 1997 재인용). 정서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내적 감각과 외적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인식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인자 역, 1984; 하정, 1997 재인용). Freud로부터 현대까지 정서를 억누르는 것은 심리적·신체적 증상에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King & Emmons, 1990; 하정, 1997 재인용). 고민스러운 일이나 정신적 충격을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나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

에 덜 걸린다는 결과가 있다(Mendolia & Kleck, 1993; Pennebaker & Hoover, 1986; Pennebaker & O'Heeron, 1984; 하정, 1997 재인용).

정서표현이란 일반적으로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고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욕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지닐 수 있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홍윤기, 2009).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는 역할을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Emmons & Colb, 1995; 김원, 2008 재인용).

### 4. 가족 특성 변인

#### 1) 아버지역할만족도

우리나라에서 부모자녀관계는 가족내의 어떤 관계보다도 핵심적이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김태현, 1994; 고기숙, 2003 재인용). 중년남성은 자녀와의 유대관계에서 사춘기가 된 자녀와 변화된 관계에 직면하면서 당혹스러움과 어려움을 경험한다(옥선화, 이기춘, 이기영, 이순형, 공인숙, 1991; 황인성, 1998; 고기숙, 2003 재인용).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반면 중년남성은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관계를 맺기 원하여(Cronway, 1978; 고기숙, 2003 재인용) 서로에게 갖는 기대의 불일치로 심리적 당혹감을 가질 수 있다.

서정아(1998)는 중·장년기남성 모두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Voydanoff와 Donnelly(1989)의 연구에서도 부모역할만족도는 성별에 상관없이 심리적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정아, 1998). Campbell(1976)은 부모역할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만족도가 중년기 남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서정아, 1998).

#### 2) 결혼만족도

중년기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남녀 모두 이 시기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남제(1984)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Adams(1980)와 유영주(1979)는 결혼년수가 길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허미화, 2003).

서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가 U자형을 보인다라는 연구결과들이 많고(Atory et al., 2007; Berry & Williams, 1987; Rollins & Cannon, 1974),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는 L자형(Blood & Wolfe, 1960)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

Coverman(1989)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심리적복지감과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Cleary와 Mechanic(1983)은 우울감과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서정아, 한경혜(1998)는 결혼만족도가 중·장년기에 관계없이 심리적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만족도가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부모부양부담

부모부양부담은 노부모의 부양자인 성인자녀가 피부양자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뜻한다. 효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으로 노부모 부양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성규탁, 1991, 1995; 이은경, 1999; 최정혜, 1994; 최정혜, 1999 재인용).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정경희 외, 1998; 장휘숙, 2008 재인용), 전체 노인의 69%가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고(장휘숙, 2008) 노부모를 돌보는 사람들은 비슷한 계층의, 비슷한 연령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많이 우울해하고 더 낮은 결혼생활 만족을 경험한다(이주연, 정혜정, 2003; Hoyert & Seltzer, 1992; 장휘숙, 2008 재인용)고 하였다.

중년기 남성의 가족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노부모부양부담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이은아, 2007), 중년기남성과 노부모와의 유대관계에서 갖는 특징은 부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신체·심리·경제적 측면의 의존성과 이로 인한 노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역할변화(Gibson, 1985; 고기숙, 2003 재인용)로 중년남성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중년남성은 노부모와의 유대관계에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주장들이 있다(Neugarten, 1975; Brody, 1985; 최은경, 1993; 김양희, 김진화, 박정운, 2001; 고기숙, 2003 재인용).

### 5.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하여 평가할 때 갖는 만족스러운 또는 바람직한 정서상의 태도(Locke, 1955; 김영선, 2003 재인용)이다. 남성들에게 일이란 사회 내에서 그의 일차적인 삶의 근거이며, 그것을 통해서 직업적 체계 속에 들어가게 되며 문화적, 계층적, 사회적 틀 속에 짜여 들어가며 동시에 중요한 심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Levinson et. al., 2007).

대부분의 중년기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Mass, 1989; Tamir, 1989; 정옥분, 2008 재인용), 중년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직업경력상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고 수입도 가장 좋다(정옥분, 2008). 직업만족도는 중년기 후기(50-59세)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감소하며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의 자율성, 개인적 도전과 성숙의 기회, 성취감,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이 많다(Clausen, 1981; 정옥분, 2008 재인용).

중년기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중년기는 자신의 직업에 익숙해지고, 직업전환의 기회가 점점 적어지며, 자신의 직업에 적응하게 되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봉급도 많아진다고 해석되며, 중년기 사람들은 성년기 때 보다 가족이나 개인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정옥분, 2008). 직업만족도와 심리적복지감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다는 결과(Bradburn, 1969; Cleary & Mechanic, 1983; Kinnunen, 1996; Pearlin, 1975; 서정아, 1998 재인용)가 있으며, 중년기의 심리적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서정아, 1998).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부산, 수원, 대전, 서울, 울산, 천안, 여주, 수지지역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조사당시 만 45세에서 53세사이의 결혼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 중년 남성 166명이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규모가 크고 집단 내 이질성이 많으므로 자료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대상자의 조건을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직위는 경영관리직과 전문직이 80.7%로 중견간부급이 대부분이었고, 평균 연령은 47.8세 이었다. 대졸 이상이 78.9% 이고, 월소득 평균은 648만원이며 500만원 이상이 74.6%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이었다. 배우자직업은 주부가 71.7%로 많았으며, 결혼지속기간은 16년 이상 25년 미만이 72.2%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6.1%로 대부분이었고, 현 직장 재직기간은 21년 이상 25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40.9%로 가장 높았다. 평균 자녀수는 2명으로 71.7%를 차지하였으며,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라는 비율이 89.7%로 대체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본 조사대상자는 초혼 남성으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있고, 자녀수는 평균 2명이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매우 높고, 대기업에서 중견간부직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임을 알 수 있다.

〈표 1〉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의 일반적 특성

N = 166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45세	27(16.3)	월소득	200-300만원미만	5( 3.0)
	46세	22(13.3)		300-400만원미만	13( 7.8)
	47세	35(21.1)		400-500만원미만	24(14.5)
	48세	28(16.9)		500-600만원미만	46(27.7)
	49세	16( 9.6)		600-700만원미만	29(17.5)
	50세	18(10.8)		700-800만원미만	17(10.2)
	51세	10( 6.0)		800-900만원미만	18(10.8)
	52세	8( 4.8)		900만원이상	14( 8.4)
교육 수준	고졸	16( 9.6)	직업 유형	생산가능직	4( 2.4)
	전문대졸	19(11.4)		판매서비스직	3( 1.8)
	대졸	94(56.6)		사무직	25(15.1)
	대학원석사	31(18.7)		경영관리직	121(72.9)
	대학원박사	6( 3.6)		전문직	13( 7.8)
배우자 직업	무직 주부	118(71.1)	근무 시간	9시간이하	37(22.2)
	생산가능직	1( 0.6)		10시간	61(36.7)
	판매서비스직	7( 4.2)		11시간	17(10.2)
	소규모자영업	1( 0.6)		12시간	39(23.5)
	사무직	7( 4.2)		13시간	4( 2.4)
	경영관리직	2( 1.2)		14시간	4( 2.4)
	전문직	24(14.5)		15시간	1( 0.6)
결혼 지속 기간	10년이하	8( 4.8)	현직장 경력	10년이하	19(10.8)
	11-15년	21(12.6)		11- 15년	31(18.6)
	16-20년	62(37.3)		16- 20년	32(19.2)
	21-25년	58(34.9)		21- 25년	68(40.9)
가족 형태	26-30년이하	8( 4.8)	건강 상태	26- 31년이하	16( 9.6)
	핵가족	143(86.1)		아주좋지않음	2( 1.2)
자녀수	확대가족	18(10.8)		별로좋지않음	15( 9.0)
	1명	18(10.8)		보통이다	55(33.1)
	2명	119(71.7)		대체로건강	77(46.4)
	3명	25(15.1)		매우건강	17(10.2)

※ 결측치로 인하여 각 변인별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2. 측정도구

1) 심리적복지감

Ryff(1989)가 개발한 척도를 연구자가 새롭게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는 내 성격이 대체로 마음에 든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만족한다’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6, 8, 9, 10, 13, 16, 18번 문항은 역점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c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Block 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권 지은(2002)이 번역한 척도 총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그중에서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strong)”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라는 문항을 ‘나는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c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3) 정서표현

King과 Emmons(1990)의 정서표현 질문지(The Emotion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김원(200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주위 사람들은 대개 알아챈다’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c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4) 아버지역할만족도

아버지역할만족도는 Canfield(1995)의 아버지됨 만족 척도(Fathering Satisfaction Scale: FSS)를 조선화(1998)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나는 아버지로서 자신에 만족한다’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등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c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5) 결혼만족도

중년남성의 결혼만족도는 Schumm 외(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를 수정한 정현숙(1997)의 RKMS로 측정하였다. RKMS는 ‘결혼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 총 4문항으로 결혼생활에 대하여,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다.

6) 부모부양부담

부모부양부담은 임정숙(2007)의 척도 17문항 중에서 ‘부모 부양부담을 느낀다’ ‘형제, 자매들 간에 부양문제로 불화가 생긴다’ 등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4 이다.

7) 직업만족도

직업만족도 척도는 서정아(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직업에 대한 추천여부,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 직업의 기대 부여 정도, 직업 전환에 대한 인식의 총 2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결혼 경험이 있는 중년남성 이었다. 자료수집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중견간부에게 의뢰하는 비확률적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경영관리직, 연구직, 전문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본 조사는 2009년 8월 한 달 동안 실시하였으며 28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226부가 회수되었으며 연구목적에 맞지 않는 연령대에 속하거나 기제가 미비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166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의 Alpha계수)를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개인내적 특성 변인, 직업만족도, 가족 특성 변인과 심리적복지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직물상관관계를 실시하였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심리적복지감 및 관련변인의 전반적 경향

개인내적 특성 변인과 가족 특성 변인,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복지감의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내적 특성 변인 중 자아탄력성 평균은 51.78( $SD = 5.90$ )로서 ‘비교적 탄력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표현 평균은 52.59점( $SD = 6.12$ )으로 ‘보통이다’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 변인 중 아버지역할만족도 평균은 20.55점( $SD = 4.07$ )으로 아버지로서 역할만족도가 ‘보통이다’와 ‘대체로 만족한다’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16.74점( $SD = 3.05$ )으로 대체로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부양부담 평균은 9.22점( $SD = 4.30$ )으로 ‘다소 그렇지 않다’가 대부분이 이었다. 부모 사망으로 해당 없는 사례가 11명 이었다.

직업만족도 평균은 65.21( $SD = 8.91$ )으로 ‘보통이다’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복지감의 평균은 67.36점( $SD = 7.10$ )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심리적복지감 및 관련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	M	SD	범위
자아탄력성	51.78	5.90	32-66
정서표현	52.59	6.12	34-69
아버지역할만족도	20.55	4.07	9-30
결혼만족도	16.74	3.05	4-20
부모부양부담	9.22	4.30	0-24
직업만족도	65.21	8.91	43-96
심리적복지감	67.36	7.10	48-86

2. 심리적복지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r = .03$ 에서  $r = .45$ 로서 다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복지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교육수준( $r = .16, p < .05$ ), 월소득( $r = .17, p < .05$ ), 및 건강상태( $r = .19, p < .05$ )가 심리적복지감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세 변인들을 통제변수로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대한 개인내적 특성 변인과 가족 특성 변인 및 직업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개인내적 특성 변인(자아탄력성, 정서표현)과 가족 특성 변인(아버지역할만족도,

〈표 3〉 독립변인들 간 상관관계

N = 166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교육수준	1									
2. 월소득	.26**	1								
3. 건강상태	-.04	.03	1							
4. 자아탄력성	.22**	.11	.17*	1						
5. 정서표현	.19*	.12	.03	.45***	1					
6. 아버지역할만족도	.17*	.23**	.15	.27***	.17*	1				
7. 결혼만족도	.18*	.09	.12	.38***	.31***	.42***	1			
8. 부모부양부담	-.07	.04	-.12	-.22**	-.07	-.23*	-.17*	1		
9. 직업만족도	-.01	.12	.18*	.31***	.31**	.22**	-.28***	.17*	1	
10. 심리적복지감	.16*	.17*	.19*	.60***	.47***	.50***	.36***	-.40***	.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개인내적특성 변인과 가족 특성 변인 및 직업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

N = 166

독립변인	$\beta(b)$	F	R <sup>2</sup>
교육수준	-.03(-.24)		
월소득	.05(.18)		
건강상태	.03(.26)		
자아탄력성	.34(.41)***	25.34***	.59
정서표현	.22(.25)***		
아버지역할만족도	.29(.51)***		
결혼만족도	-.02(-.05)		
부모부양부담	-.21(-.35)***		
직업만족도	.13(.10)*		

\* $p < .05$  \*\* $p < .01$  \*\*\* $p < .001$

결혼만족도, 부모부양부담) 및 직업만족도는 심리적복지감을 유의미( $F = 25.34, p < .001$ )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심리적복지감에 대한 설명력은 59% 이었다.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 독립변수가 심리적복지감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 $\beta = .34, p < .001$ )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역할만족도( $\beta = .29, p < .001$ ), 정서표현( $\beta = .22, p < .001$ ), 부모부양부담( $\beta = -.21, p < .001$ ), 직업만족도( $\beta = .13, p < .05$ )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부모부양부담이 적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이 높아졌다. 결혼만족도는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없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특

성 변인(자아탄력성, 정서표현)과 가족 특성 변인(아버지역할만족도, 결혼만족도, 부모부양부담) 및 직업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 중년남성은 경영관리직과 전문직이 80.7%, 대졸이상이 78.9%, 월소득 500만원 이상이 74.6%로 교육수준과 소득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배우자직업은 주부가 71.7%로 많았으며, 결혼지속기간은 16년 이상 25년 미만이 72.2%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6.1%로 대부분이었고, 현 직장 재직기간은 21년 이상 25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40.9%로 가장 높았다. 자녀수는 2명이 71.7%이며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라는 비율이 89.7%로 대체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으로 초혼이며,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있고, 평균 자녀수가 2명이며,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은 대기업 중견관리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부양부담이 적을수록 심리적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상대적 영향력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의 삶에 개인내적 특성 변인인 자아탄력성과 정서표현이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중견관리직의 특성 때문인지 혹은 일반적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인지에 대해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아탄력성은 부정적 스트레스 상황이나 경험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성격 특성으로, 중년기에 느낄 수 있는 개인·가족·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환경을 수용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쉽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심리적복지감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 경제성장의 주역이며 동시에 자녀와 부모에 대한 책임감은 높으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미처 준비 없이 현실을 맞게 되는(박주연, 2009) 중년남성이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개인의 성격 특성인 자아탄력성에 의해 위기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은 경쟁우선주의, 성과우선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들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회사 일에 매진하느라 아내와 자식들과의 대화나 공감능력은 서툴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한 감정을 갖는 일이 잦다(박주연, 2009).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대한 긍정적 정서표현은 자신, 타인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년남성의 부모부양부담이 낮을수록 심리적복지감이 높았다. 중년남성은 중년기의 특성과 부모부양기간의 장기화, 책임감 증가 등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이은아, 2007),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중년기 남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김경신, 이선미, 1998) 부모부양부담이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김지경(2010)은 가구주가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가구 중 약 11%가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79%는 함께 살지 않은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가 생존하고 있었고, 현금 혹은 현물의 형태로 부모(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가구는 전체의 55%에 달한다고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부양을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의 노후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즉 부모부양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첫 세대(정성호, 2006)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역할만족도, 정서표현, 직업만족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개인내적 특성 변인과 가족 특성 변인의 영향이 직업만족도보다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개인내적 특성과 가족역할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결혼만족도는 심리적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역할만족도와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r = .42$ )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경우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보다는 직업생활에 투자해온 결과(한경혜, 2010)가 아닌가 유추된다. 결혼만족도가 중·장년기에 관계없이 심리적복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 서정아와 한경혜(1998)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중년남성이 내면의 자기(Self)를 구축하여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자아탄력성과 내면에 있는 여성적인 특성인 아니마를 잘 표현하는 정서표현 능력이 있을수록 심리적복지감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정서표현 능력이 풍요로운 중년기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년기 남성은 아버지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부담이 적을수록 그리고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복지감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이 안정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만족스러운 아버지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 노부모의 부양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복지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중년남성으로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젊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안감이 증가하고, 은퇴에 대한 고민과 함께 미래 삶을 고심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현재의 위치에 이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일과 함께 하였고, 자기조절 능력이 강하고 현실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며 일과 가정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과 사회의 가치관과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에 따라 심리적 부담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삶에 대한 단편적 정보가 존재할 뿐 이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면밀한 체계적 연구가 없는 현 시점에(한경혜, 2010),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을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초혼의 중년남성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수준과 직업지위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중년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다른 가족주기에 비해 가장 낮은 지를 밝히고, 부모역할만족도 변인이 없을 때 결혼만족도가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앞으로 은퇴를 맞이하게 되는 베이비붐 세대 중년 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환경 변인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강모성, 전영주, 손태홍(2008). 기혼 중년남성의 직무 및 가족 스트레스와 자살구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05-134.

고기숙(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지은(2002).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민, 한경혜 (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 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24(3), 211-230.

김경신, 이선미(1998). 중년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93-106.

김명자(2003).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김민철, 박시영, 김경화(2010). 베이비붐 세대 '2010년 쇼크' - 30년 일한 직장인의 경우. <http://news.chosun.com> 에서 2010년 1월 9일 인출.

김애순(2004).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영선(2003). 가족기업 종사자의 일-가족갈등 및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원(2008). 아동의 정서강도,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의 갈등과 공격성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민(2003). 중년기 남성의 일·가족역할 수행부담 및 심리적 복지감.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경(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양부담. 방한남 외.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현, 김양호(2003). 중년남성의 남성 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나일주, 임찬영, 박소화(2008).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국가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 **노인복지연구**, 42, 151-174.

류지수(2007).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경실(1995). 남편의 직업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업주부 부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근희(2004). 한국 중년남성의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연(2009). 남자나이 50, 그 쓸쓸함에 대하여. **weekly 경향**, 823호, 14-17.

박준희(2004). 기혼남녀의 성격특성, 가족관계스트레스, 여가활동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아, 한경혜(1998). 가족 및 직업 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65-177.

안정신(2005). 중노년기 미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전생애 발달과정의 부모자녀관계와 생산감 발달의 영향. **한국노년학회**, 25(2), 245-266.

안정신, 한경혜, 차승은(2004). 한국 중년 성인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구조와 문항정보. **한국인간발달학회**, 11(4), 75-93.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7). **남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윤정기(2008). **내 남자를 위한 관계의 심리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은아(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47-562.

임정숙(2007). 부부친밀감이 노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휘숙(2008). **성인심리학-성인발달, 노화, 죽음**. 서울: 박영사.

정성호(2006). **중년의 사회학**. 서울: 살림.

정옥분(2008).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학지사.

정채기(1997). **남자도 사람이다**. 서울: 집현전.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조선희(1998). 아버지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원지, 한경혜(2001). 직업역할 및 아버지역할이 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20.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9), 85-101.

하유진(2007).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 20, 30대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정(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 사고, 행동영역의 통합적 고찰.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에 대한 이해, 베이비붐 세대의 Lifestyle과 가족. **2010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31.
- 한경혜, 이정화, 옥선화, Ryff, C., Marks, N.(2002).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회**, **22**(2), 209-225.
- 한남제(1984). 가족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40년 특집 심포지움 자료집**, 46-61.
- 허미화(2003).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선, 현명호(2005). 가족의 애착, 귀인양식 및 자아탄력성과 표출정서(Expressed Emotion)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37-51.
- 허유정(2000). 행복감과 정서표현 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윤기(2009). 어머니 자녀간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련성.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신덕(2004). 상사의 리더십 및 상사에 대한 신뢰와 구성원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tt, R. C., Marshall, N. L., & Pleck, J. H.(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May), 358-367.
- Bauer, R. A.(1966). *Social Indicators*. Mass: M. I. T. Press.
- Camp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anfield, K. R.(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Kansas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Clausen, J. A.(1981). Men's occupational career in the middle years. In D. H. Eichorn, J. A. Clausen, N. Haan, M. Hnonzik, & P. Mussen(Eds.), *Present and past in middle life*. New York: Academic Press.
- Jaques, E.(1965). Death and the mid-life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6*, 502-14.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H., & Mckee, B.(2007) *The Seasons of a Man's Life*. N. Y.: Knopf.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김애순(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8년 원저발간)
- Lois, M. T.(1982). Men at middle age: Developmental transitions.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64*, 47-56.
- Neugarten, B. L.(1979). Time age, and the life cycl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7), 887-894.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접 수 일 : 2010년 3월 29일

심사시작일 : 2010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일